'짝패' 관계 이루는 책들 잇달아 출간

「한국책략」과 「조선책략」 등 다른 대상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접근

'짝패(doublic)' 관계를 이루는 책들이 줄지어 출간되고 있다. 「한국책략」「중국근세종교윤리와 상인정신」「기호의 정치경제학비판」「조선동포에게 고함」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각각 「조선책략」「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독일국민에게 고함」 등과 "서로 거울처럼 맞서는 저작"들로 "시공간적으로 불균등한 대상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학문적 패러디' 또는 '윗텍스트/아래텍스트성' 등의 개념으로도 양자간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각각 풍자와 텍스트性에 대한 정치한 논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짝패' 개념으로 묶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소장 사회학자 김성기씨는 말했다. 그리고 현대의 사학 논문은 대체로 19세기 사학자 액튼의 명언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들이지 시대가 아니다(Study Problems not periods)"라는 의견에 엄격히 따른다는 점에서도 위에 열거된 책들은 같은 '문제'를 다룬다는 '짝패' 개념이 무난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시대 같은 문제 다룬 책들

「한국책략」(지호준 저, 범문사)은 경제블록화, 우루과이 라운드 등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경제상황에 대처할 효율적인 전략방안(책략)을 제시한다.

세계경제전쟁에서 한국이 이기는 길을 모색하고 그 방법으로 "防엔화" "親미국-일본-유럽" "聯중국-아세안" "結북한"을 내세움으로써, 19세기 말 당시 청나라 주일참사관 황준헌이 조선외교의 갈 길을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防러시아, 親중국, 聯미국, 結일본"을 제시했던 「조선책략」과 짝패관계를 이루는 셈이다.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원인 저자 지호준씨는 "19세기 후반 서구열강은 총·대포 등을 내세워 한반도를 몰아세웠으나 20세기말에는 경제전략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하는 무기만 다를 뿐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는 대외상황은 유사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집필케 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조선책략」이 러시아 남하정책에 대한 방어가 그 당시로서는 최대의 과제였는지, 일본과의 결합문제 등에 있어 그 세세한 방법론에 결함이 지적되는바, 「한국책략」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 없지 않"(「세계일보」, 6월 25일자)다는 점에서도 댓구를 이룬다. 그러나 「조선책략」이 1880년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불균등한 대상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는, '짝패(doublic)' 관계를 이루는 책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이지 시대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짝패의 저작들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춘다. 좌우가 바뀌므로, 짝패는 '모방'이나 '영향'이나 '반영'과도 다르다.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보수적인 유생들에게 洋夷 배척정신을 일소시키고 개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대원군의 쇄국정책에서 온 구각을 벗게 하였다"(「국사대사전」)는 점과 「한국책략」이 "시장개방에 반대의 기치만을 올릴 뿐 시장경쟁력 강화에 소극적인 산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점 또한 짝을 이룬다.

「중국근세종교윤리와 상인정신(余英時 저, 정인재 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은 "베버식(Weberian)의 문제"로서 "중국사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저작물이다. 하버드大, 예일大를 거쳐 현재 프린스턴大에서 중국사 및 중국사상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그의 '自序'에서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저서가 제공한 범례를 참고하였다"고 밝힌다.

이 책의 핵심문제는 "중국의 유·불·도 3교의 윤리 관념이 명·청대의 상업의 발전에 대하여 추진적인 작용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라는 점에서는 베버의 문제의식과 짝을 이루지만, 저자는 결코 "자본주의가 어째서 중국에 출현하지 못하였나"하는 문제는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거울과도 같은 짝패 관계에는 금을 긋는다. 즉 "중국에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못한 이유는 중국에 '세속안의 고행'의 윤리가 결핍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치와 법률이 아직도 '이성화(rationalization)의 과정'을 겪지 않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베버식의 답안"을 거부하고 단지 "베버의 어떤 상관된 관점을 통하여 중국 근세종교의 전향과 상인계층의 흥기 사이의 역사 관계와 맥락을 분명히 밝히기"를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다.

짝패관계의 책들.

저자는 1955년에 중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맹아論"에 대한 열렬한 토론과정이 마르크스와 베버의 '이념형'에 억눌려 중국사의 특수성을 전혀 도외시했던 탁상공론임을 지적한다. 즉 서양식 현대자본주의의 출현이 역사적인 필연이며, 서양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인류사회발전의 보편적 법칙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여러 함축된 의미를 지니는바, 만약 일반적 '상업자본주의'로 이해한다면 고대 중국·인도·바빌론을 막론하고 일찍 출현했다는 것. 결국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본주의란 현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전한 '공업 자본주의'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16, 7세기 네덜란드와 영국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교가 아니라 경제활동이며,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한 번 출현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더욱이 서양 이외의 사회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역사적 단계는 아니다"라는 영국 경제사가 토니의 「종교와 자본주의의 흥기」 등을 예로 들며 베버식 이론의 기계적 적용을 거부한다.

서로 거울처럼 맞서는 문제의식의 책들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보드리야르 저, 이규현 역, 문학과지성사)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되는 책이다. 이 두 책은 각각 '기호'와 '물질'이 짝패를 이룬다. 보드리야르는 이 저서에서 "기의가 기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기호학의 논지를 사용해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는 논지를 추출, 맑스의 "자연주의적 사용가치" 개념을 해체시킨다.

지난 89년에 나온 「조선동포에게 고함」(박은식 저, 김효선 역, 배영사)은 "새로운 교육에 의하여 국민을 각성시키고 민족정신을 앙양시키는 등 국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 않는 한, 짓밟힌 민족의 명예를 되찾을 수 없다"는 요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1808년 나폴레옹 점령하에 독일 베를린 학술원에서 거행된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과 짝패관계에 있다. 공간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고, 시간적으로 약 100년의 간격이 있지만 나라를 잃은 처절한 상황에 부딪친 두 지식인의 표정이 좌우는 바뀔지언정 거울에 비친 한 인물처럼 닮아있다.

「조선동포에게 고함」은 원래 박은식이 1911년 망명지인 만주에서 집필한 중편소설 형식의 「夢拜金太祖」를 역자(민족문화추진회 재직)가 「독일국민에게 고함」과 짝패를 이루도록 제목을 고친 것. "꿈속에서 발해 유민의 후손인 金나라 태조를 배알하면서 주고받은 대화"인 이 글은 일제 36년간 금서로 묶여 국내에서 간행되지 못한 사연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의 침략 속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동포들에게 피맺힌 절규로 토해낸 글이므로 역자는 "이 글에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조선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역자해설'에서 말한다. 한편 최근 번역된 「학문을 권함」(후쿠자와 유키치 저, 지안사) 역시 "일본동포에게 고함"이라는 평을 듣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중식 기자